



학살자의 추모비



제주 4.3의 흔적을 찾아가는 중에 토벌대장 박진경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그의 악랄한 행위로 군영 내에서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흔치 않은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을 봤다.

제주시 충혼묘지에 그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과 그 비의 존재에 대해 논란이 되어오다 시민단체에서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제목의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해 그의 행적을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는 친일 극우파로 일본군 공병대 출신이며, 미군정의 앞잡이로 11연대 제주토벌대장으로 부임해 와 "제주 도민 30만을 다 죽여서라도 빨갱이들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산간 주민 모두가 토벌 대상으로 피바람을 일으켰다.

학살된 아버지의 주검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을 박진경이 직접 총을 쏘 죽이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놔둘 수 없었다"고 법정에서 최후 진술한 두 부하가 손선호 하사와 엄상길 중위다.

그 살인마 박진경의 추모비가 뒷면의 엉터리 내용으로 애국 투사가 되어 충혼묘지에 제주 도민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에 놀랍고, 윤석열 정권 들어 극우파들의 극성으로 가두어 두었던 철창까지 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어찌할꼬. 이것이 웃지도 못할 우리의 현주소다.